

#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09. 2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8
IV. 국제신인도 .....	10
V. 종합의견 .....	12

# 러시아

## I. 일반개황

면적	17,075.2천 km <sup>2</sup>	G D P	16,420억 달러(2008)
인구	141.8백만 명(2008)	1 인 당 GDP	11,580 달러(2008)
정치체제	대통령 중심제	통화단위	Ruble(RUB)
대외정책	강대국의 지위회복에 주력	환율(달러당)	24.90(2008년 평균)

-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, 앞선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임.
- 1991년 구소련 체제 붕괴이후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,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%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음.

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현재는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 하락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-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,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, 제도의 불투명성, 관료주의 및 부정 부패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
## II. 경제 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 <sup>e</sup>
경제성장률	7.2	6.4	7.4	8.1	6.0
재정수지 / GDP	4.8	7.5	7.4	6.1	5.5
소비자물가상승률	10.9	12.7	9.7	9.0	14.1

자료 : IFS, EIU

#### □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 급속 둔화

-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, 내수시장 확대,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7%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음. 그러나, 2008년에는 상반기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, 유가 하락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전년보다 다소 낮은 6.0%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
- 한편,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와 국제유가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감소와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(-0.7%)이 전망되고 있음.
- 그러나, 러시아경제는 2009년 4/4분기 이후에는 국제유가 회복과 루블화 가치 안정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힘입어 점차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될 전망

- 재정수입의 약 50%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세 수입으로 2008년까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.

- 그러나, GDP대비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2007년에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, 2008년에는 4/4분기 이후 유가 급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각각 약 6.1%, 5.5%로 점차 낮아졌음.
- 2009년에는 국제유가 약세 지속과 정부의 에너지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 조치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수지가 GDP 대비 -3.1% 수준의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며,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재정 적자를 적립기금(Reserve Fund)으로 충당할 예정임.

\* 석유안정화기금(Stablization Fund) 현황(2009. 1월말) : 총 2,210억 달러 (Reserve Fund 1,370억 달러, National Welfare Fund 840억 달러)

#### □ 물가상승률은 2008년 4/4분기 이후 진정 추세

- 대량의 오일달러 유입,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내수와 재정지출이 꾸준히 확대됨으로써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1%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왔음.
- 특히, 2007년 하반기 이후의 세계적인 원자재가 및 식료품가 급등으로 2008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15%나 상승하여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음.
- 그러나,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상품가격 하락,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자본유출 증가 등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되어 2008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14.1%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, 경상수지 적자, 자본유입 감소 등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완화되고는 있으나, 루블화가치 하락,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일부 공공요금 자율화 등 물가상승요인도 상존하여 연간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.5%p 하락에 그친 12.6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□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

-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(석유,가스)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게됨.
- 2008년 상반기까지는 고유가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나,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성장히 급격히 둔화되었으며, 2009년에는 석유수출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.

\* 에너지(석유,가스) 산업 의존도 : 총수출의 약 65%, GDP의 20%, 재정수입의 50%

### □ 러시아 정부,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해 주요산업 육성 추진

-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해 조선, 항공, 해운, 전력, 자동차, 나노기술 등 주요산업에 대하여 지주회사 설립, 국영기업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중임.

### □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, 세계 11위의 경제대국

- 러시아는 석유, 가스, 석탄,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인구도 1억 4천만명에 달해 내수기반도 갖춘 2007년 기준 GDP규모 1조 2,9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.

\* 석유 : 확인매장량(794억 배럴) 세계 7위, 생산(연간 4.9억톤) 및 수출 세계 2위

\*\* 천연가스 : 확인매장량(44.7조㎥) 세계 1위, 생산량(연간 6,074억㎥) 및 수출 세계 1위

### □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한 장기개발계획 수립, 추진

- 러시아 정부는 2008년 2월, 2020년까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“장기사회경제개발계획(Socio-Economic Development Plan 2020 ; Strategy-2020)”을 수립, 추진중에 있음.

- 동 계획의 주요 골자는 향후 10년 동안 총 1조 달러를 투자하여, 전력, 철도, 도로, 공항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노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임.

#### □ 오일머니 적립을 통한 재정안정 도모

- 에너지가 급락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비코자 2002년부터 석유,가스 수출세 수입과 연방예산 잉여금으로 석유안정화기금(Stablization Fund)을 적립해 옴.
- 2008년 2월 석유안정화기금(Stablization Fund)을 적립기금(Reserve Fund)과 국부기금(National Welfare Fund)으로 분리, 적립기금은 대외 채무 상환과 재정 부족에 충당하고, 국부기금은 정부 개혁프로그램에 사용키로 함.
- 러시아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2009년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동 부족분을 적립기금(Reserve Fund)로 충당할 예정임.

#### □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

-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영은행을 통한 기업 외채상환자금 지원 500억 달러, 120개 은행앞 무담보 유동성 지원 670억 달러, 국영은행앞 장기자금 대출 350억 달러 등 총 2,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함.
- 금융위기 초기 루블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외환을 공급하였음에도 루블화가치의 하락이 지속되고 외환보유고만 줄어들어 따라 2008년 11월 부터는 루블화가치 하락을 용인하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약 20회 걸쳐 점진적으로 환율변동폭을 확대하여 왔음.

\* 루블화가치 변동 : 2008. 8월말 Rub24.5769/US\$1 → 2009.1월말 Rub35.4146/US\$1  
(루블화가치 44% 하락)

#### □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대책 강구

-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를 가져옴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(24%→20%),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에너지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, 실업급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.

### 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 <sup>e</sup>
경 상 수 지	59,512	84,409	94,340	76,241	98,855
경 상 수 지 / GDP	10.1	11.0	9.5	5.9	6.0
상 품 수 지	85,825	118,364	139,269	130,915	176,500
( 수 출 )	(183,207)	(243,798)	(303,550)	(354,401)	(469,000)
( 수 입 )	(97,382)	(125,434)	(164,281)	(223,486)	(292,500)
외 환 보 유 액	120,805	175,690	295,277	465,504	406,205
총 외 채 잔 액	196,799	229,073	251,067	355,845	353,204
총 외 채 잔 액 / GDP	33.3	30.0	25.4	27.6	21.5
D . S . R .	9.8	14.7	13.0	8.2	13.1

자료 : IFS, EIU

#### □ 2009년 총수출은 국제유가 약세 및 석유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약 30% 줄어들 전망

- 총수출의 약 2/3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2008년까지는 매년 연 20%-33%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여 왔으나, 2008년 8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수출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.

\* 우랄산 유가 : U\$129.3/배럴(2008.7월 평균) → U\$38.1/배럴(2008.12월 평균) → U\$42.9/배럴(2009.1월말 기준)

- 2009년에는 국제유가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 위축으로 석유 생산량도 줄어 총수출은 2008년(5,730억 달러) 대비 약 30% 감소된 3,97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\* 2009년 국제유가 전망 : IMF U\$50/배럴, EIA U\$43/배럴

\*\* 러시아 석유생산량 : 2008년 490백만톤 → 2009년 480백만톤

#### □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급감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될 전망

- 2008년까지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던데 힘입어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해 왔음.

- 2009년에는 국제유가 약세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2008년(1,765억 달러) 대비 약 76% 감소된 418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서비스수지(-290억 달러) 및 소득수지(-600억 달러)의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경상수지는 GDP대비 -4%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총외채잔액은 감소세로 전환

- 2008년 초부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영향으로 러시아 기업 및 은행의 국제금융시장 신규 차입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,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해외차입이 거의 불가능해진 실정임.
- 따라서, 총외채규모는 증가하지 않은데 반해 수출과 GDP규모는 증가함으로써 2008년에는 총외채잔액/총수출(%), 총외채잔액/GDP(%)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짐.

\* 총외채잔액(EIU 추정) : 2007년말 3,558억 달러 → 2008년말 3,532억 달러

- D.S.R.은 2005-2006년 총 430억 달러 상당의 파리클럽채무 조기상환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나, 2007년에는 원리금 상환액 감소와 수출증가로 인해 8.17%로 낮아졌음. 그러나, 2008년에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으로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D.S.R.이 13.1%로 다시 높아졌음.

#### □ 외환보유고 세계 3위 수준이나, 2008년 8월 이후 지속 감소 추세

- 2002년 441억불에 불과하던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유가의 지속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, 2008년 8월초에는 5,9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.
- 그러나, 2008년 8월 이후 그루지야와의 전쟁 발발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및 은행의 외채상환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함으로써 외환보유고가 급격한 감소하게 되었음.

- 그 결과 2008년 8월초 5,980억 달러이던 외환보유고(금 포함)는 2008년말 4,380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, 2009년 1월말 현재는 3,880억 달러로 최고치 대비 35% 감소된 상태임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동향

##### □ 원만한 권력이양으로 정치경제적 연속성 유지

- 2008년 5월 푸틴 前대통령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, 푸틴 자신은 총리로 취임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안정성(stability)과 연속성(continuity)이 유지되고 있음.

##### □ 집권여당의 의회 장악으로 정국 안정

- 2007.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당시 푸틴 대통령이 이끌었던 통합러시아당(United Russia)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의회(두마) 전체의석의 70%(315석)를 차지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어 있음.

##### □ 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및 의원 임기 연장

- 2008년 12월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, 두마(하원) 의원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.

#### 2. 사회동향

##### □ 계층간·지역간 불균형 확대 및 실업률 상승

- 단기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·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,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. (실업률 : 2008. 7월말 5.7% → 2008. 12월말 7.7%)

□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은 야기되지 않을 전망

- 러시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 개혁 및 시베리아, 극동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장기개발프로그램을 수립, 추진중에 있음.
-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는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금, 공공부문 급여 및 실업자 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을 계획임.
- 경제위기 이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, 이러한 시위가 사회불안요인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□ 정부의 강력한 치안유지 노력으로 사회불안 해소

- 2000년대초 푸틴 前대통령의 체첸반군 강제진압 이후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,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치안유지 노력으로 체첸 반군에 의한 사회불안요인은 크게 감소됨.
- 그루지야와의 전쟁으로 분쟁지역인 남오세티야, 압하지야 자치공화국내 치안불안 요소가 상존하나 이는 국지적 불안에 그칠 전망이다.

### 3. 국제관계

□ 서방과의 대립 심화

-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자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NATO 가입 및 폴란드, 체코에 대한 전략미사일방어기지(MD) 구축 문제로 서방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.
- 2008년 8월 그루지야 침공 및 분쟁지역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대한 독립국가 인정 등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됨.

- 2009년 연초 발생한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안전한 가스공급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.

**□ CIS국가에서의 영향력 회복 모색**

- 구 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(CSTO)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(EEC)를 중심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특히 최근에는 석유,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.

**□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 개선 기대**

- 최근 미국 오바마 신정부가 전략미사일방어기지(MD) 구축계획 재검토를 시사하고, 이에 대해 러시아가 환영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 관계 개선이 기대됨.

**IV. 국제신인도**

**1.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**

**□ 세계 신용평가기관 투자적격등급(Investment Grade) 유지**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외환보유고의 급감, 유가의 하락 및 대규모 자본유출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투자적격등급이 유지되고 있음.

**□ 주요 기관별 신용등급 현황**

- Moody's : Baa2 ('05.10) → Baa1 ('08. 7)
- S&P : BBB ('05.12) → BBB+ ('06. 9) → BBB ('08.12)
- Fitch : BBB ('05. 8) → BBB+ ('06. 7) → BBB ('09. 2)
- OECD : 3등급 ('07. 1) → 3등급 ('08. 1) → 3등급 ('09. 1)

## □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US EXIM : 민간, 공공부문 제한적 인수 가능
- ECGD : 단기 및 중기 정상 인수
- Hermes : 단기 인수 가능, 제약조건 있을 수 있음

## 2. 외채상환 태도 및 능력

### □ 정부채무 조기상환

- 2005년 1월 IMF차관 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였으며, 2005~2006년 2년에 걸쳐 파리클럽채무 430억 달러도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.

### □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되었으나, 총외채도 감소세로 전환

- 루블화안정과 기업 및 은행의 대외채무 상환 지원을 위해 대량의 보유 외환을 투입함으로써 외환보유고가 최근 6개월만에 1/3 감소되었으나 2009년 1월말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3,880억 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2007년까지는 기업 및 은행의 해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, 2008년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2008년말 총외채잔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.

\* 총외채잔액(EIU 추정) : 2007년말 3,558억 달러 → 2008년말 3,532억 달러

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90. 9. 30 (북한과는 1948. 10. 12 수교)

□ 주요협정 : 무역협정, 투자보장협정(90년), 이중과세방지협정, 기본관계조약(92년), 군사기술, 방산/군사협력협정(97년), 나호트카 한러공단설립 협정(99.5월)

□ 교역규모(2008년) : 180.9억 달러(수출 97.5억불, 수입 83.4억 달러)

- 2008년중 대 러시아 수출 및 수입이 각각 20.5%, 19.5% 증가하여 전체 교역량이 전년대비 약 20% 증가
-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교역 비중 : 수출 2.3%(8위), 수입 1.9%(14위)

## V. 종합의견

□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-푸틴 총리 체제의 유지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,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도 유지되고 있음.

또한 NATO 확대와 전략미사일방어망구축(MD) 문제로 그 동안 서방측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심리도 악화되어 왔으나, 최근 미국 신정부가 MD구축문제의 재검토를 시사함에 따라 서방측과의 관계개선이 기대되고 있음.

□ 경제적으로는 국제유가의 약세 지속과 세계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과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.

그러나, 2009년 들어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4/4분기 이후에는 국제유가 및 세계경기의 회복세 전환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.

선임조사역 안상훈(☎02-3779-6650)

E-mail : [ash1199@koreaexim.go.kr](mailto:ash1199@koreaexim.go.kr)